

## 미국 오푸스 데이 본부 방문

미국 오푸스 데이 본부인 [무라이 힐 프레이즈] (Murray Hill Place 맨해튼, 뉴욕)의 실제 방문 비디오를 보여드립니다. 태리 케론 미국 오푸스 데이 대변인의 안내.

2006-5-10

Murray Hill Place는 맨하탄에 ( 렉싱턴가와 34번가)위치한 다목적 공간이다. 다섯 구역으로 분리돼 있다: 오프

스 데이 국내 여성 본부, 남성 본부, 컨퍼런스 센터,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센터 (Schuyler Hall) 그리고 이 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컨퍼런스 방문자들을 빼고 현재 58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5년에 Murray Hill Place에서 만 개(10,000)가 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 달간에 평균 12개의 피정, 가톨릭 교리 수업이 5개 진행, 40개의 영?삶을 위한 실용적인 지도, 5개의 영적 컨퍼런스, 2개의 주말 피정,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회원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다. 또한 한 달에 8개의 문학이나 교육 세미나가 있고 Murray Hill Institute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곳은 2001년에 완공됐다. 토지, 건축과 비품은 6천9백만 달러였다. 기금은 18년을 걸쳐 모아졌다. 오천 명이 넘는 회원과 비회원들이 기부를

했고 십만 달러가 넘는 기부가 50개  
넘었다.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migug-opuseu-dei-bonbu-bangmun/](https://opusdei.org/ko-kr/article/migug-opuseu-dei-bonbu-bangmun/)  
(2026-4-1)